

PM 2009-19

Vol. 6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제6호 2009년 8월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진흥원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7층

TEL: 02-3780-9700 E-mail: nilepr@nile.or.kr



2009년 8월



권두언

한국 평생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 01



이달의 포커스

원로 연기자 박규채 선생과의 인터뷰 / 03



평생교육진흥원 들여다보기

〈어제는...〉

- 01.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 운영점검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6
- 02. 2009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선정 결과 발표 / 06
- 03. 제2차 문해교육교원연수 과정 운영 / 07
- 04. 아셈 평생학습 컨퍼런스 (ASEM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 참석 / 07

〈오늘과 내일〉

- 05.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 09
- 06. 제6회 평생학습대상(大賞) 안내 / 10
- 07.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학점인정 안내 / 11
- 08. 8월 독학학위제 소식 / 16



이달의 평생학습인

도전하는 즐거움으로 강산이 변했다 / 17



평생교육기관 탐방

함께 배우고 즐기는 행복충전소 / 20



우수 프로그램 보따리

실버세대를 위한 재미있는 인문학 강좌 / 22



평생교육 정책동향

- 한국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 24
- 보건복지가족부의 평생교육정책 / 25
- 해외 정책동향 / 29



전국은 평생학습중

- 평택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 가져 / 31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추진단 발족! / 31
-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연수 개최 / 32
- 명강의 찾아 평택시민자치대학 속으로 gogo!! / 32
- 제49회 일본 전국사회교육연구집회 개최 / 33



평생교육 책갈피

석·박사 논문 현황 / 34
숫자로 보는 평생교육 _ 7·11·30 / 36



알리는 말씀 / 37

한국 평생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21세기를 맞이한 인류는 그 기대와 희망만큼이나 산적한 범지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류가 이전까지 성취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발전의 성과는 그에 상응하는 어두운 그늘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빈곤, 전쟁, 환경, 인권, 자원고갈 등 여전히 새로운 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세계문제(global issues)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역설적으로 다시 개인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은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국가적,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인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 교육은 늘 그 막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다.

양차세계대전 후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국제연합의 교육·과학·문화 전문기구로서 설립된 유네스코는 1946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교육문제와 역사를 함께해 온 국제기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생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활동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관련 국내의 문헌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복잡한 경제,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기존 교육체제에 커다란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50-60년대를 거치며 세계성인교육의 과제를 다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애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out life span)’이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등의 용어가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술용어로서 평생교육 개념이 제기된 것은 1965년 12월 개최된 유네스코 성인교육발전국제위원회에서의 일이다. 동 위원회는 당시 성인교육 전문가였던 Paul Lengrand가 제시한 ‘평생교육이론’을 검토하고 이 원리를 유네스코 본부가 직접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후 유네스코는 1968년 ‘세계교육의 해’를 기념하는 12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Lengrand의 「평생교육개론(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을 출판했다. 그 후 유네스코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거치며 평생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 유네스코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 보급하는 한편, 1973년 8월에는 춘천에서 철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분야의 교수와 언론계 인사 30여 명을 초청, 제1차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에 평생교육 개념 정착화를 시도하였다. 이 세미나는 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으로 부르게 된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 외에도, 1970년대 초 이미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교육문제 성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970년대 평생교육 개념의 확산으로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도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새 헌법에 평생교육의 진흥이 명문화되었고, 1999년에는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한 평생교육법이 탄생되어 2007년 개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평생교육의 역사를 조금은 장황하게 되짚어본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교육문제는 세계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교육문제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사업은 그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다.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은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EFA의 여섯 가지 목표로 1)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2)초등교육의 보편화, 3)청소년과 성인의 평생학습 요구 충족, 4)성인문해, 5)양성평등, 6)양질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체제 전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8가지 목표 대부분도 평생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wenty-first Century)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평생학습 개념은 21세기를 여는 열쇠의 하나로서, 초기교육과 계속교육 사이의 전통적인 구별을 뛰어넘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의해 제시된 도전들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날로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업이 성공하려면 교육이 네 가지 근본적인 학습유형, 즉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10월 서울에서는 금년 12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위한 아태지역 준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생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체제를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부문이 교육학의 경계를 넘어 더욱 활발한 학제 간 대화를 시도하고, 처음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보다 더욱 역사를 반추하고 미래세대를 고민하며, 지역 사회, 국가, 지구적 각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세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참여가 요청된다 하겠다.

우리 사회는 국제사회로부터 평생교육의 개념을 수용한 뒤, 평생교육을 통해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과 일의 균형, 곧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과 능동적인 시민정신의 실험 등을 계속해 가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더불어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로 연기자 박규채 선생과의 인터뷰

Q 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평생교육계의 원로 박규채 선생님과 우리나라의 방송계의 대표적인 연기자 박규채 선생님이 동일인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생교육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A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께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장학제도가 없을 때,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53명이나 학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중학교 다닐 때 우리집이 작은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 방에 책을 가득 가져다가 놓아주셔서 제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우리집에 와서 책을 보게 해주셨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이러한 삶을 보고 살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평생교육에 큰 공헌을하신 분 중 하나인 제 손윗동서 김제태 목사, 도의원을 지낸 맹은재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1972년도에 ‘서울노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노인들을 가르쳐 뭐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다들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청소년이나 주부학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인학교를 제가 1호로 시작했습니다.

Q 당시에 노인학교를 시작하신 건 획기적인 일이었겠습니까.

A 획기적인 일이긴 했죠. 또 제가 노인학교를 시작했듯이, 대한민국 실버 야구단을 만들어서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NO老’였죠. 그리고 ‘한국 노인 컴퓨터 교실,’ 이것도 최초로 내가 무료로 했어요. 그 당시엔 없었던 일이지. 대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처음 그것을 제가 했어요. 노인들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작하면서 야구단을 하고, 세계최초로 ‘실버 국제 친선 야구’를 제주도에서 했죠. 지금도 실버 야구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Q 선생님께서 평생교육을 시작하신 70년대 초 당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상황은 어땠는지요?

A 그 당시에는 사회교육이라고 했지. 지금에서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 김종서 선생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모여 사회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관심은 매우 적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죠. 아무튼 TV에도 나오고 연기도 하면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Q 그 당시 사회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없으셨는지요?

A 어려움이 많았죠. 사회교육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모여 다니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
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거치면서도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직도 맡게 되
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제는 평생교육에 대한 강의도 하면서 생활하
고 있죠.

Q 당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황종건 교수, 김종서 교수, 김신일 교수, 김지자 교수 등이 당시 사회교육활동을 하던 멤버들이죠. 늘 같
이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다 보니, 저는 한국여성사회교육협회를 부회장도 하게 되고, 여성사회교육협회.
남자가 여성사회교육협회 부회장이 되었죠. 지금의 한국여성평생교육협회의 전신이 되는데, 그 덕에 강의
도 많이 했지.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회장을 꼭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지(웃음).

Q 단체나 협회를 운영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A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다들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발전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 직업이 연기자
였기 때문에 단체의 행사에 연예인이 필요하면 제가 데리고 와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후배 연기자들한
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Q 선생님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평생교육에 투신하시게 한 평
생교육에 대한 소신이 있으신지요?**

A 나라의 기본적 힘 중의 하나가 가정교육과 평생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잘되면 국가가 잘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국가의 기본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평생교육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
었어요. 대학강의, 평생교육강의 등을 하고 그걸 통해 보람을 느낍니다. 드라마 출연을 작년까지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것 아니면 교양프로만 하고 드라마는 안해요. 드라마를 하면 다른 것을 못해서요. 연습해
야지, 대사 외워야 하지, 야외촬영에 실내 녹화에... 또 드라마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욕심이 생
기면 하지만 드라마는 사양하고 교양프로를 나가죠.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공무원들의 교양강좌도 나
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생활하고 보람도 느껴서 내가 좋아요. 참여해서 좋은 일 하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
으니 항상 보람을 느껴요.

Q 방송에도 출연하고 강의도 다니시려면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할 텐데요.

A 건강이 중요하긴 해요. 매일 아침 한 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죠.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Q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데는 다 비결이 있으시군요.

A 그러면서 사고도 있었지만, 잘 회복되었어요. 평상시에 한 운동이 많은 효과를 보았죠. (*2006년 백두산 관광중 버스 전복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바 있다.)

Q 평생교육법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계와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참여하신 전문가로서, 향후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극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감정 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듯이 연극이라는 예술, 그것도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은 극중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체험하게 합니다. 연극으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동작업을 하며, 작품과 배우·무대·관객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세상,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의 역할연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듯이 그 연극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평생교육이죠. 우리 사회교육협회에서 연극한 적이 있어요. 주인공은 최운실 교수가 했지. 최교수가 아주 잘했어요. 김신일 교수도 하고.... 그렇게 평생교육과 연극, 연극뿐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이고, 무용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 공연예술, 그 밖의 문화에도 평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요즘에는 인성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연극인 것이죠.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연극과 사회교육에 대해서. 사회교육 세미나 가서 발표도 하고 했어요. 연극은 평생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평생교육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평생교육의 몫이고, 평생교육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요.

Q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으로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정책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부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은 참 잘했다 싶어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 준 정부는 휘발유 같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들 사이에서 평생교육이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곳도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 시 : 2009. 7. 29. 15:00~16:00
장 소 : 안산신문사 논설위원실
인터뷰 진행 : 최일선(대외협력팀장)

01.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 운영점검을 위한 워크숍 개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에서는 2008년 9월 지정된 7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대한 점검과 2010년 8월까지의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 및 운영협의를 위하여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백석문화대학 평생교육원 정해동 원장을 비롯하여, 7개 지정양성기관의 전담교수 및 담당자,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평생교육진흥원 이영찬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해영 연수문해팀장의 지정양성기관제도 운영보고, 각 기관별 운영 경과 및 현황 보고, 우수사례 발표, 신규 지정기관(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컨설팅, 지정양성기관 운영협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02년 1차지정부부터 200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성과와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운영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2008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수도권]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 [중부권] 백석문화대학 평생교육원
- [호남권]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 [영남권]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 [제주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2002년 1월 18일 처음 4개 기관에서 시작하여 지정·운영되었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2008년 9월, 4차 지정으로 전국 권역별로 7개 기관이 선정되어, 앞으로 2010년 8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순영·윤정은 ☎ 02)3780-9757~8

02. 2009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선정 결과 발표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평생교육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학부모교육, 전문계고 활용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핵심적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1일(금) 2009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전국 38개 지역교육청(145개 초·중·고교)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했다.

지원금액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억원	9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해당 지역교육청	경기포천, 충북청주, 대전서부, 경남하동, 부산남부, 부산해운대, 전북완주, 충남태안, 충남연기	강원정선, 대구남부, 경기용인, 서울강서, 대구달성, 전북남원, 서울남부, 인천남부, 서울동작, 대구동부, 인천동부, 충북제천	경남사천, 광주동부, 충남서산, 광주서부, 인천북부, 대전동부, 전남목포, 부산북부, 제주서귀포, 울산강남, 경북문경, 전남영광, 충북진천, 전북김제, 강원태백	경기수원, 경북구미
계	9	12	15	2
총 지원예산	총 34억(사업 관리 비용 : 8천 만원)			

2009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에 선정된 지역교육청 및 145개 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1,20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개발팀 이은주 ☎ 02)3780-9753

03. 제2차 문해교육교원연수 과정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제1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에 이어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모집 공고하여 8월 7일까지 접수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은 총 4개 과정(기본과정, 심화1·3과정, 기관경영자과정)이 개설되었다.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개최하는 연수과정으로, 성인학습자의 학력 인정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제1차 문해교육교원연수는 약 50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총 145명이 선발되었다. 이번 제2차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총 12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27일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9월 14일부터 2주간 과정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영아·전승희 ☎ 02)3780-9759~60

04. 아셈 평생학습 컨퍼런스 (ASEM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 참석

지난 2009년 7월 20일(월)부터 22일까지 3일간 ‘ASEM Conference, Lifelong Learning: e-Learning and Workplace Learning’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셈평생학습교육연구허브(ASEM Education and Research Hub for Lifelong Learning)와 태국 교육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행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를 참조. <http://dpu.dk/site.aspx?p=13612>)

이 회의 첫날에는 아셈평생학습교육연구허브의 의장인 Arne Carlsen과 자문위원장인 Zoltan Loboda의 경과보고에 이어 e-Learning 연구네트워크의 연구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주관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김보원 교수가, workplace learning 연구네트워크의 연구사업 진행에 대하여 주관기관인 덴마크 아후스대학교의 Lynne Chisholm 교수가 발표하였다. 현재 아셈평생학습연구허브에서는 위의 두 연구네트워크 외에 Profession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National Strategies of Lifelong Learning, Core Competences 등 총 5개의 연구네트워크가 운영중이다. 이중에서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한승희 교수) Core Competences 네트워크의 컨퍼런스는 오는 10월 29~30일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교육연구 컨퍼런스(10th ICER)의 분과회의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고, 전체 연구네트워크의 연구결과는 내년 하반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첫날 오후부터 둘째날까지는 아래와 같이 두 연구네트워크의 연구보고서 발표가 진행됐다.

1 e-Learning 네트워크 연구보고서 발표

발표제목	이름	소속
Social Network and E-Learning: Ways Toward Lifelong Learning	Dr. Tinsiri Siribodhi	The Southeast Asian Minister of Education - SEAMEO
Workplace learning and the contribution of e-learning	Dr. David Lancaster	The International Training, Research and Education Consortium, UK
Nation-wide and global services for sharing quality lifelong learning content in Japan	Professor Dr. Tsuneo Yamada	The Open University of Japan
The Implementation of Lifelong learning in Thailand	Associate Professor Dr. Archanya Ratana-Ubol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Quality development and standards in e-Learning: Benefits and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Assistant Professor Christian Strack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in e-Learning	Associate Professor Dr. Kenji Hirata	Toyo University, Japan
Cooperation Model For National e-Learning Development in Estonia	Ms. Ene Tammeoru	The Estonian e-Learning Development Centre
The Importanc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for Lifelong Learning: Wider access, new business models,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ulture	Assistant Professor Dr. António Moreira Teixeira	Universidade Aberta, Portugal
Collaborations among e-Learning Professionals for Quality Assurance of e-Learning	Professor Dr. Kinnya Tamaki	Aoyama Gakuin University, Japan

8

2 workplace learning 네트워크 연구보고서 발표

발표제목	이름	소속
Putting knowledge to work	Professor Karen Evans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K
Learning through different phases of Czech school heads' carrer	Professor Milan Pol	Masaryk University Brno, Czech Republic
Facilitating organizational innovation through human resource practices : employees' views	Professor Jianmin Sun	Renmin University of China

셋째날에는 e-Learning 연구네트워크와 workplace learning 연구네트워크의 연구진 내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e-Learning 연구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내년 전체 컨퍼런스에서 발간 예정인 e-Learning백서 발간, 백서를 기초로 한 e-Learning 모범사례집 발간, 국가간 정보수집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고, workplace learning 연구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workplace learning에서 의무적 참가와 자발적 참가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의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과 유럽의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20개국 연구자 및 정부대표 60여명을 포함하여 총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백은순 평생교육정책본부장, 최일선 대외협력팀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김보원 기획처장, 김영임 원격교육연구소장, 성지훈 박사가 참가하였다. 자세한 컨퍼런스 진행 동영상은 <http://www.thaicyberu.go.th/>에서 볼 수 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장 최일선 [☎ 02)3780-9716]

05.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평생교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탐색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09.5.15,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이어 오는 9월 3~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평생교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지난 11월 출범한 한국다문화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에서는 첫째날,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인 차윤경 한양대 교수의 ‘세계화 시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성낙돈 덕성여대 교수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박윤경 청주교대 교수가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모경환 서울대 교수, 오재림 숙명여대 교수, 김경식 경북대 교수가 주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둘째날에는 ‘다문화 사회에서 공동체 사업의 추진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의 발표와 서종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 ‘다문화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대상과 정책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외국 이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사회의 또 다른 일원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의 _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세화·안지영 [☎ 02)3780-9713, 9712]

06. 제6회 평생학습대상(大賞) 안내

‘평생학습대상’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일상적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여 국가 전체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매년 실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아래와 같이 ‘평생학습대상’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2 주관 및 후원

- 주관 : 중앙일보,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3 시상부문(7개 부문)

- 개인학습자 :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혁신, 성공적인 학습 성과를 보여준 평생학습인
- 성인교육자 :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습자들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성인교육자
- 학습동아리 :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습의 성과를 널리 알린 학습동아리
- 교육기관 및 단체 : 지역 주민 또는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공헌이 큰 교육기관·단체
- 학교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원 :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의 학습문화 형성에 공헌이 큰 학교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원
- 기업 : 평생학습을 통해 직장 내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및 평생교육에 공헌이 큰 기업
- 기초자치단체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지역의 학습문화 형성에 높은 성과를 보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4 시상 내용 : 부문별 상장 및 상금 수여

-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부문별 1명, 각 500만원)
- 우수상 : 공동주관 기관장상(부문별 2명, 각 300만원)

※ 학교 및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기업, 기초자치단체는 시상금 수여 제외



• 시상내역

부 문	시 상 내 역			
	대 상		우수상	
	시상인원(단체)	시상금	시상인원(단체)	시상금
개인학습자	1	500만원	2	300만원
성인교육자	1	500만원	2	300만원
학습동아리	1	500만원	2	300만원
교육기관 및 단체	1	500만원	2	300만원
학교 및 학교부설평생교육원	1	-	2	-
기업	1	-	2	-
기초자치단체	1	-	2	-

5 시상식 : 2009년 12월 17일(목), 서울시(구체적 장소 미정)

6 접수기간 : 2009. 6. 19 ~ 8. 14까지(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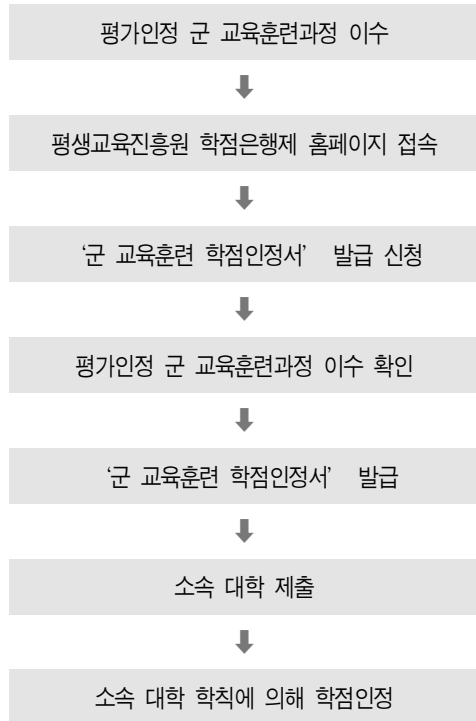
7 신청방법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홈페이지(www.nile.or.kr/www.lll.or.kr)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접수
- 접수처 :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 인프라코어빌딩 6층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사업진흥팀 “평생학습대상” 담당자 앞
(전화 02-3780-9763 / 이메일 ycg1@nil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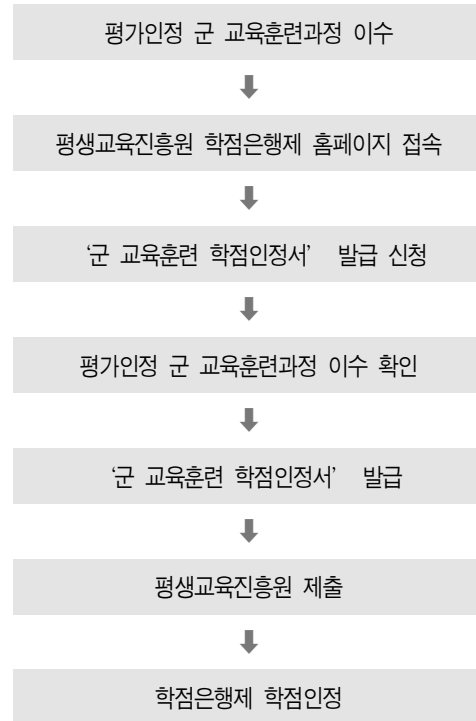
07.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학점인정 안내

군 복무중에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대학생(학점은행제 학습자)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을 통해 소속 대학(교) 학점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속 대학(교) 학점인정 절차
(대상자 : 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대상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문의 _ 학점은행운영본부 제도운영팀 이범수 ☎02)3780-9813

■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과정 현황

■ 육군

기관명	과정명(병과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육군공병학교	전공병	148	전기설비1(3)
	공병장비정비	170	디젤기관실습(3)
	배관/설비반	144	배관공학(3)
육군기계화학교	전차승무병	176	자동차정비기초실습(2)
	전차정비병	176	자동차공학(3)
	포탑정비병	176	공유압실습(2)
	장갑승무병	136	자동차정비기초실습(2)
	장갑정비병	176	자동차공학(3)
육군정보통신학교	유선시설운용정비병	124	전송선로실습(2)
	교환시설운용정비병	94	정보통신기기실습(2)
	MW장비운용정비병	172	정보통신기기실습(2)
	통신통제기운용정비병	94	정보통신기기실습(2)

기관명	과정명(병과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중계기/반송기운용정비병	96	정보통신기기실습(2)
	레이더운용정비	146	레이더공학실습(2)
	암호체계관리	148	정보보호개론및실습(3)
육군종합군수학교	발칸수리병	210	전자기초실습(3)
	화포수리병	170	기계장치정비실습(2)
	감시장비수리병	148	전기전자공학개론(3)
	K-1전차수리(차체)병	210	디젤기관실습(3) 동력전달실습(3) 자동차공학(3)
	K-1전차수리(포탑)병	210	디젤기관실습(3) 동력전달실습(3) 자동차공학(3)
	M형전차수리(차체)병	210	디젤기관실습(3) 동력전달실습(3) 자동차공학(3)
	M형전차수리(포탑)병	210	디젤기관실습(3) 동력전달실습(3) 자동차공학(3)
	자주포수리병	210	디젤기관실습(3) 자동차전기실습(3)
	장갑차수리병	170	디젤기관 실습(3) 동력전달 실습(3)
	유선장비수리병	134	통신기기실습(2)
	무선장비수리병	134	통신기기실습(2)
	중계/반송기수리병	164	통신기기실습(2)
	차량수리병	170	자동차공학입문(3)
	용접/철물수리병	132	용접실습(3)
	건설장비수리병	148	동력전달실습(3)
	화학장비수리병	240	센서 및 계측 실습(3)
	의무장비수리병	168	의료기기실무(3) 의공실습(3) 의료정보학(2)
	차량정비병	138	자동차공학(3)
	선박운용병	172	항해개론(3) 선박운항개론(3)
	원치운용병	172	화물하역론(3)
	화물검수병	172	항만물류학(3)
	광학기재수리	148	광학기기론(3)
	탄약처리	136	방폭공학(3) 화약학(3) 발파공학(3)

기관명	과정명(병과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육군종합행정학교	헌병특기병	101	경호학(3)
	수사특기병	112	범죄수사론(3)
육군포병학교	자주포정비병	45	디젤기관실습(2)
	자주포조종수병	45	디젤기관실습(2)
육군항공학교	소형기동헬기정비반	69	항공기정비실습(실무)(2)
	중형기동헬기정비반	72	항공기정비실습(실무)(2)
	공격헬기정비반	84	항공기정비실습(실무)(2)
	기체/기관/계기수리반	108	항공기정비실습(실무)(2)
	운항관제반	98	항공교통개론(2)
육군특전사령부 특수전교육단	낙하산정비 및 포장	160	항공스포츠(3)
	공수기본	136	
육군방공학교	발칸포운용	134	대공무기실습(3)
	비호운용	134	
	휴대용유도탄운용	134	유도무기실습(3)
	천마운용	134	
	발칸포정비	134	전기전자공학개론(2)
육군화학학교	화학병	142	화생방학(3)

■ 해군

기관명	과정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해군기술병과학교	기관병	90	내연기관(3)
	전기병	74	전기설비실습(2) 전기공학개론(2)
	시설병	75	건축일반구조(3)
	가스터빈병(내기)	160	가스터빈(2)
	보수병(보수)	160	소방실무(3)
해군정보통신학교	통신병	63	전파공학개론(3) 무선통신개론(3)
	전공병	72	유선통신공학개론(3) 정보통신공학개론(3)
	전산병	64	컴퓨터활용(2) PC활용(2)
	전자전병	51	전파공학개론(3)
해군609전대	항공병	52	항공학개론(3)
해병대학교육단	유무선병	130	정보통신실습(2)
	수색전문반	104	스킨스쿠버(3)

기관명	과정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상장승무병	56	자동차정비기초실습(2)
특수전여단	특수전초급	108	스킨스쿠버(3)
해난구조대	해난구조병	108	스킨스쿠버(3)
해군전투병과학교	전탐병	89	레이더실습(2)
	갑판병	63	해상안전실무(2)
	통기병	125	암호학개론(3)
해군 군악교육대	군악 병특기과정	180	음악이론(3) 전공실기(3)
해군행정학교	조리병과정	121	한식조리실습(3)

■ 공군

기관명	과정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공군기술학교	항공기체정비병	127	항공정비실무(3)
	항공기관정비병	118	항공기기관실습(3)
	항공부속정비병	126	항공기장비실습(2)
	항공지상장비정비병	99	내연기관(3)
	항공제작정비병	160	항공기기체정비실습(3)
공군정보통신학교	암호취급병	88	암호학개론(2) 암호학기초(2) 정보보안(2)
	무선정비병	88	정보통신공학개론(3)
	유선정비병	70	정보통신공학개론(3)
	정보체계운영병	68	전산학개론(3)
	전술항공통신병	97	정보통신공학개론(3)
	항공기상관측병	75	대기관측및실습(3)
	항공관제병	70	항공교통관제실습(2)
공군군수학교	전력운영병	104	전기설비설계(3)
	토건병	105	시공학(3)
	환경관리병	81	폐수처리공학(3)
	차량정비병	125	차량정비기초(3)

■ 국방부(국군군의학고)

기관명	과정명	총 수업시간	학점인정 학습과목명(학점)
국군군의학고	방사선촬영병	162	방사선영상학(3)
	의무병	110	기본간호학및실습(3)
	임상병리병	162	임상병리개론및실습(3)

※ 학점인정은 병과별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함. 표에서와 같이 학점인정 학습과목명이 복수인 경우에는 병사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시에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1개 과목을 선택함.

08. 8월 독학학위제 소식

1 독학학위제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실시안내

8월 16일(일)에 독학학위제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3,528명이 지원하였다. 전공분야별로는 국어국문학 200명, 영어영문학 283명, 경영학 1,759명, 법학 739명, 행정학 72명, 유아교육학 124명, 가정학 140명, 컴퓨터과학 208명 등이다.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수험표, 공적신분증,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볼펜이 필요하다. 수험표는 3단계 응시자격 심사가 끝나는 8월 7일부터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또는 어플라이뱅크(apply.jinhak.com)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8월 16일(일) 9:00부터 17:50까지 4교시 동안 진행된다. 배정된 고사장은 수험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해야하며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합격 여부는 9월 11일(금)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시간표

시간 \ 교시	1교시	2교시	(중식)	3교시	4교시
	09:00~10:40 (100분)	11:10~12:50 (100분)	12:50~13:50 (60분)	14:00~15:40 (100분)	16:10~17:50 (100분)

문의 _ 학위관리상담본부 출제관리팀 김재열 ☎ 02)3780-9870
학위관리상담본부 고사관리팀 이은지 ☎ 02)3780-9865

2 독학학위제 FAQ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받게 되면, 학사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의 법률적 효력은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와 동일합니다. 제도시행 이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 단, 입학세부기준은 해당 대학(원)에 미리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즐거움으로 강산이 변했다

— 제5회 평생학습대상 개인학습자부분 대상 수상

이 해 선



우리 집은 미륵산 중턱에 제법 넓은 과수원을 하면서 살았는데, 부모님께서는 내가 초등 학교를 졸업하자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돕게 했다. 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서 한번 왔다가는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야할 것인가, 많은 갈등으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런 중에도 틈만 나면 문학 서적을 읽고 친구들에게 일기처럼 편지를 썼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배우지 못 했던 한을 자식들에게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학년 초 아이들의 ‘가정환경실태조사서’에 본의 아니게 ‘학력란’을 ‘고졸’이라고 거짓으로 채우고 죄책감과 자존심이 상하여 괴로운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엄마의 학력을 모르는 아이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얼버무리며 지나친 순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또 친구들을 만나 학창시절의 얘기를 할 때면 조용히 지켜보아야 하는 나만의 배우지 못한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용솟음쳐 올랐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듯이 어느 날 무심히 TV를 보는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소개되고 있었다. 어려웠던 시대에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성인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고 졸업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 방송을 보는 순간 나의 가슴은 너무 흥분되어 두근거림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당신도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해보라고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여년의 긴 세월의 강을 건너 마흔여섯 살이 되어서야 중학교에 입학하여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았다. 열네 살의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30여년 만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6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온 몸은 굳어 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은 국어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낼 때마다 학우들은 힘들다고 불평을 했지만 나는 은근히 속으로 신이 났다. 나의 글을 읽어 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감사하고 행복했다. 중·고등학교 6년을 공부하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고 자연스럽게 대학진학까지 꿈꾸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엄마학생들이라보니 대입준비를 따로 시키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공부하고 나면 교실문도 나서기 전에 잊어버려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수능으로 아이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는 욕심에 남모르게 수시를 준비했다. 국문학과를 목표하고 있어서 그 학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기에, 백일장 수상경력과, 한자급수 2급자격증, 컴퓨터워드프로세서 2급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힘들고 고된 여고시절을 보냈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국립대학교인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일반전형으로 8:1의 경쟁률을 뚫고 수시로 합격하였다. 그때의 가슴 벅찬 기쁨을 나의 짧은 문장력으로는 도저히 표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나이 쉰 두 살에 여대생이 되어 부푼 꿈을





안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망하던 여대생이 되긴 했는데,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오로지 글 쓰는 것이 좋아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국문학과를 지망했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나이의 격차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가 않았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저희들끼리 어울려 다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항상 혼자 도서관에만 있어야했다. 그야말로 홀로 외딴섬에 버려져 방황하는 새 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한 학기에 책 한권을 배우니까, 한 달 공부하고 중간고사를 볼 때에는 책 반권이 시험범위였다. 녹슨 머리로 수 십 번씩 외우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오른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늘어나 부어올랐다.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하얀 답안지 용지만 받아들면 내 머리 속은 그 해답지보다 더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공부한 것의 십분의 일도 쓰지 못하고 해답지를 내밀면서 교수님께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이 어린 학우들에게 높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싫었다. 그래서 과제를 내줘도 가장 먼저 제출했고, 토론수업에도 절대로 그냥가지 않고 교재를 읽고 충실히 수업에 임했다. 익산에서 군산까지 통학하면서도 결석이나 지각 한번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착해 수업을 준비했다.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항상 신경을 썼던 것이다. 한 학기를 보내면서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엄마처럼 따라줬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 과제도 곱절로 늘어났다. 매주 소설을 2~3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야했으며, 수업시간에는 읽었던 작품의 소감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 날마다 도서관에서 교재를 찾아 읽느라고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시력은 더 나빠져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다보면 눈이 시큰거리고 안구가 움직일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전북여성백일장 동아리인 ‘글벗’ 모임에 참여하여 한 달에 두 번씩 수업에 참석하여 수필과 시도 썼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부터 야간에는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자격증’ 수업을 시작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이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에게는 30퍼센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필요한 자격증은 졸업 전에 모두 취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학기 동안에 초급을 마치고 겨울방학기간에 중급을 해서 시험을 보았다. 이 수업은 논리학, 철학, 심리학, 프로이트심리학, 글쓰기 지도 등 그 밖에도 여러 교재가 있는데, 매주 읽고 요약해서 발표를 시켰다. 학과 과제도 버거운데 자격증 과제까지 하려니 나는 매일 컴퓨터에 매달려있어야 했다. 더욱 힘든 것은 목요일 날은 12시에 학교수업이 끝났는데, 저녁 7시까지 기다리는 고충이 공부하는 것 보다 더 힘들고 지루했다. 이처럼 힘들게 공부하여 ‘독서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고 요점 정리도 터득해서 해답지를 채워나가게 되었다. 평생교육원에서 1학기에는 ‘한자지도사자격증’과 2학기에는 ‘한문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년 동안 학교공부와 자격증공부를 병행하면서 쉴 틈이 없었다. 거기에서 주일날은 교회에 다녀와서 ‘글벗’의 습작 지도까지 받고 나면 모든 근육이 경직된 것 같았다.

전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이 열려 나는 군산대학교 국문학과 학생들 여덟 명을 데리고 일반부에 접수했다. 고등부와 일반부는 전북대학교에서 백일장이 시행되었는데, 그 넓은 강당에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 갔는데, 은근히 속으로 주눅이 들었다. 시제가 발표되자 모든 사람들 입에서 괜히 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나 역시 시제가 난해해서 도저히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돌아가려고 생각하니 아이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 행사에 언제 참여해보겠냐고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어렵다고 내가 먼저 도망가는 것은 어른이 돼가 지고 비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심 끝에 여인들의 속옷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등장인물’이란 시제를 선택해서 써 보았다. 그런데 그 백일장에서 내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었다. 내 작품이 당선되다니,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진짜 ‘대상’란에 내 이름이 올라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체면이 서는 것 같았다. 대상 덕분에 학교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면제 받기도 했다.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후원해준 남편과 엄마의 보살핌도 변변치 못했는데 반듯하게 성장해준 아들과 딸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셔서, 만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종근도지사님과 녹슨 머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과 격려로 지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여생은 모든 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도록 힘쓸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위를 살펴 이웃의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한자와 글쓰기지도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한글을 몰라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창작활동도 열심히 하여 가슴 훈훈한 글로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도록 힘쓸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했는데 변한 것은 강산만이 아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나 역시 많이 변화 되었다. 예전에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고 깊어져서 사물을 대할 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 내가 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된 것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지금의 기쁨과 행복감은 바로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한 나 자신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본 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2008)에서 발간된 「제5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의 내용을 편집진이 일부 요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배우고 즐기는 행복충전소 _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배움을 향한 새로운 시작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곳은 어디일까?

칠곡군민들은 스스로없이 ‘교육문화복지회관’이라 말한다.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 평생학습, 지역복지를 기획·운영하여 주민에게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행복충전소이다. 특히,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학습은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평생학습을 생애단계별로 담당부서를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담당’, 어르신교육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담당’,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여성개발담당’, 평생학습도시사업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지원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어 단계별로 전국에서 가장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연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교육문화복지회관의 결정체는 ‘학점은행제’교육이다.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은 2000년 5월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 2005년 처음으로 학점은행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아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던 중 학점은행제를 전격 도입하게 되었다. 주민에게는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지역인 직접 육성하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고 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2009년 1학기 278명이 수강중이며, 모두 지역민들이다. 수강신청 경쟁률이 높아서 신입생일 경우는 새벽에 줄을 서야지만 수강이 가능하므로 1순위인 칠곡군민이 아니고는 수강을 엄두도 낼 수 없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수강료 또한 3학점당 1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아동가족, 컴퓨터 그래픽, 농업경영전공의 학습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으며 2009년 2월까지 63명의 전문학사, 학사학위 학습자를 배출하였고, 학위취득을 통하여 35명의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로 취업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학점은행제의 행복한 캠퍼스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모든 학생들이 지역 주민인 학점은행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은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90%가 30~40대 여성인 관계로 교육시간에 맞추어 보육교사가 있는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셔틀버스 운영, 3,000여권의 전문서적을 겸비한 정보자료실, 교·강사 대기실, 학생 휴게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강의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0년 6월말을 준공 예정으로 90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공동체한미당 행사 장면〉

건축물인 ‘칠곡평생학습관’을 신축중에 있다. 그야말로 학점은행제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공별 학술 세미나를 학기별로 실시하고 지역현장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아동가족전공 학습과목을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아동 개발 세미나’를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세미나와 함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지역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채용시 교육문화복지회관 학점은행제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1학기에는 공동체한마당 행사를, 2학기에는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여 대 학생회에서 맞보는 캠퍼스 문화를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을에는 칠곡평생학습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점은행제 교육을 홍보하고 체험의 장도 열어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한다.



〈학점은행제 학생들〉

배움이 곧 생활인 곳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학점은행제 교육을 보면 참으로 예쁜 장면들이 많다. 학점은행제 교육을 받는 30대 주부가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고 아기와 함께 책을 보는 장면을 몇 년을 거치면서 흔하게 보게 된다. 남다른 태교로 태어난 아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항상 공부하는 곳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공부하는 군민의 아이들은 30년 후에 반드시 칠곡군을 인재의 고장으로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

그러하기에 교육문화복지회관은 이러한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의 복합체이다. 단 학점은행제 뿐 만이 아니다. 장수대학,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중고졸검정고시 교육, 결혼이주여성 교육 등,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문해교육부터 학점은행제 고등교육까지 모든 주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을 넘나들면서 배움이 생활이 되어버린 곳이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이다.



〈공부하는 장면〉



〈학점은행제 학생들〉

문의 _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지선영 [☎ 054)979-6565]

실버세대를 위한 재미있는 인문학 강좌

백석실버센터는 노인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백석대학교 부설 기관이다. 특히 센터 내 노인교육문화원에서는 대학의 학문적, 교육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방 노인들에게 창의적이고 질적인 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천안은 충남의 핵심거점도시로 많은 산업체와 11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며, 노인인구의 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인구의 이동이 잦고 외부인의 비율이 높아 상당히 역동적인 지방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 내의 자생적 문화기반이 열악하고 성인교육 특히 노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의 기회는 매우 적은 불모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노인인구 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한 질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는 10여년 전 미국에서 얼 쇼리스 박사가 빈민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접하게 한 ‘희망의 인문학 - 클레멘트 코스’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대학을 중심으로 인문강좌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인문학은 사회과학과 다르다. 사회과학이 실제적인 경제적, 행정적 지식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문학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함께 비현실적인 상상과 환상까지도 포괄한다. 즉,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인문학적 소양은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고, 누구나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삶을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인문학 강좌는 자존감의 회복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고려, 시민정신을 고취시켜 주어 감사와 정신적 포만감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문강좌가 수강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 가시적 효과에 비하여 장기적, 내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큰 것이 되기 쉽고, 어쩌면 대단히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석 노인교육문화원에서 지난 2008년 가을과 2009년 봄 2학기에 걸쳐 개설한 ‘인문특강 강좌’는 매우 의미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이 강좌는 노인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강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존감을 정립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와 현대화의 큰 물결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다수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인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통하여 건강한 정신과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필요하다.

특히, 이 강좌는 인문학을 매개로 하여 충남과 천안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 문학, 예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긍지를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강의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기 인문강좌(실버인문특강)에서는 충청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백제역사와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갑사와 계룡사, 윤중고택과 충현서원, 돈암서원, 공암마을 등의 1차 답사를 통하여 어르신

들이 지역문화재를 경험하고 역사적 시각을 넓혔다.

제 2기 인문강좌에서는 1기에 비하여 좀 더 친근한 주제의 인문학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국문학자의 나무꾼과 선녀를 통한 충청도 구비문학의 이해, 심리학, 건강과 자연치료, 시인과의 대화를 통한 시와 삶, 웰 다잉과 죽음준비, 세계 축제와 철학이야기와 판소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에 이르는 알찬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독립기념관-유관순생가와 기념관을 답사하였는데, 기념관 내 전문 해설사로 봉사하시는 수강생의 해설을 듣는 기회도 있어 더욱 뜻 깊었다.

〈강의내용 소개〉

차시	강의내용	교수방법	차시	강의내용	교수방법
1 - 3	인생의 사계절	강의, 토의	19 - 21	웰 다잉	강의
4 - 6	재미있는 충청도 구비문학	강의	22 - 24	세계의 축제와 문화	강의
7 - 9	용서와 화해의 심리학	강의	25 - 27	시와 삶	강의
10 -12	현대인의 건강과 자연치료	강의, 실습	28 - 30	사는 이야기, 철학 이야기	토의식
13 - 18	독립기념관과 독립운동	문화체험	31 - 33	대화로 열어가는 관계	토의



〈실버인문특강 답사(문수산)〉



〈충현서원〉



〈유관순생가 답사〉



〈충청도 구비문학 : 수강생발표〉



〈토론수업〉



〈수료식〉

인문강좌의 강의방식은 토론과 체험을 통한 수평적 상호교육이다. 강의자-책(자료)-수강자-삶의 현장이 긴밀하게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성찰하고 나눔으로 성장하게 되는 교육방식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인문학에 접하게 된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풍성함을 느린다고 평가하였으며 행복해 하셨다고 자부하며, 이와 같은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절실히 소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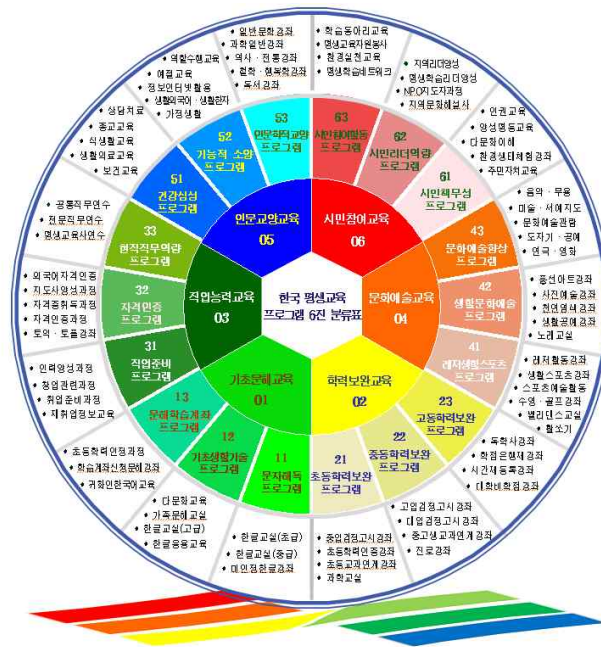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자로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특히,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서 인문강좌의 창의적 기획과 지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다.

문의 _ 백석대학교 부설 백석실버센터 소장 김혜경 ☎(070)7733-8320

한국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평생교육진흥원은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김진화 외, 2009)」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표준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전국 87개 기초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중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대학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방과후 학교, 도서관에서 2008년에 운영한 3,002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한국의 평생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설계되었으며, 대분류는 평생교육법의 6대 영역을 근거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체계화시켰다. 이어서 중분류는 프로그램의 공통성을 조사·분석하여 대분류 각 영역별로 각각 3개씩 총 18개 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KLPCS)’를 다음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및 분류표는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준거로 기능하여 평생교육의 형식화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량적 통계화를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사업의 객관적인 진단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평생교육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아동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중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대상 평생교육 정책

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 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만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이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60세~64세인 자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며, 노인복지관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퇴직노인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노인자원봉사 사진 및 수기 공모전, 노인자원봉사 경진대회,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운영, 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등이 있다. 특히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독자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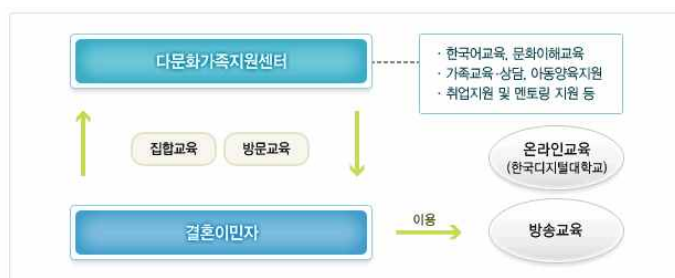
2) 가족대상 평생교육 정책

①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입국전 결혼준비기,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 강화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국전 결혼준비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입국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을 추진, 배우자 교육시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를 통한 방문교육,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을 통한 온라인 교육, 방송매체를 활용한 방송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기 개입 및 가족통합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상담기능 강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시부모,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육 체계도〉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 및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돕고 농업인력으로서의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온라인 교육 참여능력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직장예절과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지원한다.

역량 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에 출산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결성, 출산국별 초기 이민

자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과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민자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역량 강화를 이끌기 위해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공무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강사 양성·활용 등 전문적인 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생애 전환 시기별 시민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자체, 종교단체 등 유사 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학 교과과정에 가족의 다양성 등을 포함을 추진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청소년 및 아동 대상 평생교육 정책

①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은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등이 있으며,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은 지역내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프로그램, 홍보 등이 있다. 또한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 프로그램, 1318세대 프로그램 등 지역 실정과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② 방과후 아카데미

부모 맞벌이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범죄 노출·결석 및 학습부진 해소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방과후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계층간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 및 민주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학교·복지시설·보육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맞춤형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을 실시 운영하고 있다.

④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지원

청소년(아동) 활동의 한 영역(문화활동)으로 바람직한 성장과 역량 강화, 이타심 배양 등을 목표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청소년 학습과정 중심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의식형성과 참여욕구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지원체계를 구축과 자원봉사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적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자원봉사, 수련활동 및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새터민 및 다문화 청소년 대책

새터민(2007년 1만여 명),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증가(2007년 72만 명)로 인한 새터민·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증가와 더불어 이주(새터민·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 및 교육 제도 등의 차이와 언어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와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막고자 실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새터민·다문화청소년 정착지원모델 개발·운영 - CYS-Net, 학교 및 교육복지망 등과 연계 -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운영 - 온·오프라인 각종자료 등 통합서비스망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정책연구	· 다양한 사회적응·통합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연구
교육연수 및 홍보	· 학교방문 순회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실무자 등 교육·연수 인력양성

[참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

해외 정책동향

※ 지난호 신설된 해외 정책동향 이번호에는 호주학습지역네트워크(Australian Learning Communities Network)에서 분기별로 발간되는 뉴스레터 Ripples(2009. 5월)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에서 발간된 뉴스레터(2009. 6월)의 단신을 요약합니다.

학습하는 마을의 허브, 마운틴 에블린(Mt. Evelyn) 지역의 자원 센터 _ 호주

출처 : Ripples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학습도시 마운틴 에블린(Mt. Evelyn)의 중심에 위치한 도서관 내에 지역사회의 허브가 될 자원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상호적으로 교환가능한 정보와 학습자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곳은 근방의 모리슨하우스(Morrison Hous)와 지자체인 야라레인지의 샤이라(Shire of yarra Ranges) 그리고 도서관(Eastern Regional Libraries)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마운틴 에블린에서의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되어 제공될 서비스는 설비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카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링크(Community Link)와 도서관 기능이다. 본 통합공간은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통합 : 학습의 도구, 흙시(Hume Global Learning Village) 연차회의 개최 _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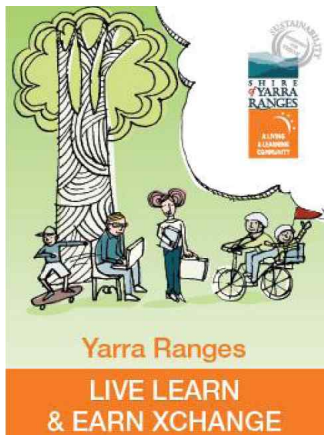
출처 : Ripples

호주의 학습도시인 흙시에서는 2009. 8. 27(목) 9:30부터 흙 글로벌 러닝센터(Hume Global Learning Centre)에서 개최된다. 본 연차대회는 학습에 관련된 실무자, 연구자, 교사, 학습촉진자 등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다. 본 회의는 흙과 주위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근거로 진행되며 향후 진행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에 촉진의 협력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www.hume.vic.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ve Learn & Earn Xchange, 야라레인지 샤아아의 온라인 네트워크 발족 _ 호주

출처 : Ripples





야라레인지 샤이아는 국가 경력 개발 주간(National Career Development Week, 5. 18~24)에 맞추어 최근 ‘LIVE LEARN & EARN XCHANGE’를 발족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일원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는 발 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삶의 전 단계에서의 단순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가 뿐 아니라, 학습 기회를 극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계획이 요구됨에 따른 조치이다. ‘LIVE LEARN & EARN XCHANGE’는 지역사회 기관과 야라레 인지 주민 개개인을 지원하는 협력적 온라인 네트워크로 평생학습과 경력개발 추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야라레인지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훈련 과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교육적 선택과 자원봉 사 기회 제공 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촉진, 레저 및 경력 개발 등의 고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까지도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본 서비스의 가입은 무료이며, 지역사회 기관 및 개인에게 서비스 된다. 홈페이지는 www.yarrarangeslearning.net.au이다.

ALCN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_ 호주

출처 : Ripples

호주학습지역네트워크(ALCN, Australian Learning Communities Network)의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뉴스레터 외에 새로운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www.lcc.edu.au이다.

국제 문해의 날 이벤트 개최, 베를린 _ 독일

출처 : UIL 뉴스레터

- 30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9월 8일, ‘국제 문해의 날’을 축하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본 행사는 연방 문해 및 기초교육 연합회(BVAG, Federal Association for Literacy and Basic Education)와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German Adult Education Association)가 협력하고 연방교육과연구부(BMBF)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의 초점은 ‘일터에서의 문 해’로 본 주제를 통하여 독일과 유럽국가들의 고용주와 사회적 파트너가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 함께 발표하 고 토론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영국의 사는 NIACE의 캐롤 테일러가 발표할 예정이다.

평택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 가져

평택시는 평생학습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여 국제화 교육중심도시 평택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평택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12회(2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32명의 평생학습 코디네이터가 배출되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의 리더십, 평생학습 자원의 재발견, 지역자원 네트워크, 평생교육 요구조사 및 분석 등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평택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단순히 교육과정 이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평생학습 기관조사를 통한 DB구축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평택시의 인적자원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학습도시’, ‘평생학습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평택시’로 나아갈 것이다.



문의 _ 평택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전길남 ☎ 031)659-4552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추진단 발족!

_ ‘경기평생교육진흥 추진단’ 위촉장 수여식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7월 16일(목) 15:00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경기평생교육진흥 추진단’으로 선발된 8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경기평생교육진흥 추진단’은 평생교육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기도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교직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3개 분과 총 87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3개 분과는 정책연구단, 학교평생교육지원단, 평생학습모니터단으

로, 앞으로 경기평생교육 정책 연구, 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지원, 지역별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준 교육국장은 인사말에서 “평생교육 국가정책 변화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추진단으로 위촉되신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시어 경기평생교육이 한 단계 도약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평생교육진흥 추진단’은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별 자체 워크숍 개최와 정보공유 및 홍보·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경기평생교육의 진흥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육선주 [☎ 031)249-0582]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연수 개최

대구중앙도서관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7월 22일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09 대구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지역 평생학습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생교육 관계자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전도근 교수(강남대학교)를 모시고 ‘평생교육 담당자의 미래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구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구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과 ‘2009 대구평생학습축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시내 공공도서관, 복지관, 여성회관 등 31개의 평생학습관과 100개의 학교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와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종원 관장은 “연수를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확대 및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보다 다양한 연수활동으로 평생학습관 등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_ 대구중앙도서관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차은경 [☎ 053)420-2736]

명장의 찾아 평택시민자치대학 속으로 gogo!!

평택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유명한 석학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9년 평택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평택시민자치대학은 올 해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총26회) 매주 목요일 15:00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제까지 개그맨 이홍렬, 방송인 오영실, 첼리스트 도완녀, 의학박사 이시형, 장경동 목사 등의 국내 유명 강사들이 평생시를 방문함에 따라 매 회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7월에는 제윤경(에듀머니 대표)의 ‘행복한 가게부 만들기’, 김병찬(KBS 아나운서)의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법’, 오한숙희(여성학자)의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이내화(이내화성공전략연구소 소장)의 ‘당신이 하는 일에 미쳐라’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김경호(이미지메이킹 센터 소장)의 ‘밝은 표정이 성공을 부른다’ 강의가 7월의 마지막 강좌로 예정되어 있다. 8월은 무더위로 인해 진행되는 강의가 없으며, 9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10월 29일 강의를 끝으로 2009년도 시민자치대학의 대장정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문의 _ 평생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이동복 [☎ 031)659-4245]

제49회 일본 전국사회교육연구집회 개최

_ 신슈·아이다·시모이나 집회 안내

일본에서 제49회를 맞이하는 전국사회교육연구집회가 8월 22일(토)부터 24일(월)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나가노현 아치무라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사회교육연구집회는 ‘주민자치력의 형성과 사회 교육: 지역을 만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배움의 확대’라는 주제 아래 현대사회에서 주민 지역자치의 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중요성과 일본에 뿌리내린 지역사회 교육과 공민관 주사의 본연 자세를 제기하고, 공민관을 거점으로 사회교육 실천을 거듭해 온 신슈·아이다·시모이나 지역에서 ‘지역을 만들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일본 전국사회교육연구집회는 사회교육이나 마을조성, 복지나 건강, 문화, 육아지원, 자원봉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 사회교육 관계 단체, 공민관·도서관·박물관 등 사회교육시설 관계자, 생애학습 행정관계자, 연구자,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임원진 등이 이번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집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japsec.txt-nifty.com/>에서 확인가능하다.

석·박사 논문 현황

1 박사학위 논문

- 김기진(2009). 노인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서대 대학원.
 박혜영(2009).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통합적 성과평가모형, 고려대 대학원.
 임순임(2009). 기혼여성의 영어평생학습을 위한 멘토링 사례연구, 전주대 대학원.

2 석사학위 논문

- 권민우(2009).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
 김동민(2009). 성인학습자의 학교 평생교육 만족도 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박진홍(2009). 중장기 복무 군인의 퇴역준비교육 참여 동기 및 장애요인, 숭실대 대학원.
 성수현(2009). 평생교육 교수자의 교육정향성에 관한연구, 동의대 대학원.
 신은숙(2009). 평생교육으로서 성인 대상 미술 강좌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수도권 내 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신태현(2009).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학습자 만족도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안진영(2009).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나눔터(러닝샵)와 학습정원(러닝가든) 사례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안혜령(2009). 노인 여가문화교육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M센터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인학습자를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양승미(200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무용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연구, 세종대 대학원.
 엄미영(2009).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윤주영(2009). 직무유형별 경력정체요인에 관한 연구: S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이동준(2009). 평생학습도시 정책과 기타 도시정책 비교분석,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이용희(2009). 영어마을의 시장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 학부모참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교육대학원.
 이운식(2009). 평생교육이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적 평생교육 고찰, 고려대 교육대학원.
 이은선(2009). 대학 평생교육원 음악과정연구: 대전지역대상, 충남대 교육대학원.
 임형균(2009). 성인 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관계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田 然(2009). 한국과 중국의 학습도시정책 비교연구, 공주대 대학원.
 전용숙(2009). 직업연계형 논술학습동아리 사례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정란지(2009). 초등학교 평생교육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인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정유진(2009). 학습동아리의 집단역동에 관한 사례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조경선(2009). 고학력 중년여성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참여성과, 숭실대 대학원.

조성용(2009). 평생교육사의 직무능력 인식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최미자(2009). 병원간호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경남대 교육대학원.

황두영(2009). 평생교육사 학력수준에 따른 직무능력 인식 비교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황연순(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평생학습 사례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 본 학위논문현황은 지난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학위논문목록에서 업데이트된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오니,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를 소식지에 소개를 원하시면 nilepr@nille.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윤진·권순영 [☎ 02)3780-9717, 9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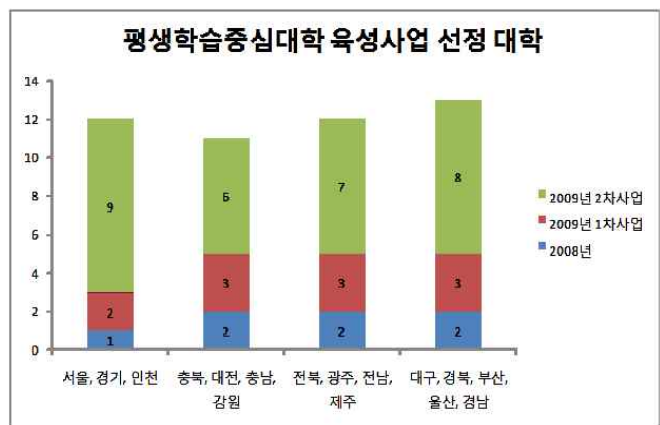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평생교육 _ 7·11·30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학령기를 지난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거점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성인학습자의 교육요구에 맞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방법을 개발·제공하고, 성인학습자의 학습지원을 대학의 운영구조에도 반영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의 (전문)대학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추진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계속교육도 활성화하는 등 개방적이고 탄력성 있는 체제를 이 끌고 있다.

2008년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금은 7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전국의 17개의 지자체와 연계된 7 개의 대학이었다. 2009년도에는 1차사업에서 11개교, 추정 예산 53억원 확보로 인해 2차사업에서 30개교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원예산은 2009년 1차사업 선정 11개교는 2억원 내외, 2차사업 선정 30개교는 각각 1억원이다.

권역	2008년 선정대학 수	2009년 1차 사업 선정대학 수	2009년 2차 사업 선정대학 수	합계
서울·경기·인천	1	2	9	12
충북·대전·충남·강원	2	3	6	11
전북·광주·전남·제주	2	3	7	12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	3	8	13
합계	7	11	30	48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에 이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성인의 학습 요구 증대,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개방적인 학사체제를 운영,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 대학’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의 소식을 홍보하는 채널이 되고자 ‘전국은 평생학습중’ 섹션을 통하여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행사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도시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정보와 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개최된 평생교육 관련 행사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선별작업을 통해 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매월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발간일은 둘째주 월요일(9월호 발간-9월 14일)이며, 9월호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에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8일(금)까지 nilepr@nile.or.kr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윤진·권순영 [☎ 02)3780-9717, 9719]



- 발간인 :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장)
-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인종(경영기획실장, 위원장), 최일선(대외협력팀장, 간사)
권재현(전략기획팀장), 이경아(정책개발팀장), 윤창국(사업진흥팀)
심한식(제도운영팀장), 진명석(출제관리팀)
- 편집실무위원 : 경영기획실-김세화(전략기획팀), 엄태희(지식관리팀)
평생교육정책본부-이은주(정책개발팀), 남상현(사업진흥팀), 서순영(연수문화팀)
학점은행운영본부-이범수(제도운영팀), 민지혜(평가인정팀), 한경아(학사행정팀)
학위관리상담본부-이은선(고사관리팀), 김재열(출제관리팀), 황정현(학사상담팀)
- 검수 및 편집 : 최일선, 윤윤진, 권순영(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 발간일 : 2009. 8. 10